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관

what's your worldview

제임스 N. 앤더슨 지음 | 김광남 옮김 | 이레서원

질문! 한국 사람에겐 매우 낯선 단어이다. 어렸을 때 부터 받아 왔던 주입식 교육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정답을 외우고, 말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피교육자 입장에서 몸에 밴 '질문 회피'와 '정답만 말하기' 패턴은 때가 되어 교육자 입장에 설 때도 그대로 배어 나온다. "이거야!", "그 생각은 틀린 거야!" 매우 익숙한 말들 아닌가?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 대한 일말의 갈구 자체도 없는 건 아니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 1권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 있다. 여기서 인간은 모든 인류를 말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저자가 1부에서 묻는 큰 질문들을 자신에게 때로는 타인에게 던지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름의 답을 세계관으로 가지고 그 세계관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러한 전제 위에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던지는 보편적인 큰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시도한다. 따라서 이 책은 종교나 세계관에 상관 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worldview)™

위 질문은 이 책의 원제목이자 저자의 큰 질문이다. 저자는 “당신은 세계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당신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다만 그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를 뿐이다. 가지고 있으나 뭘 가졌는지 잘 모르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전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명확하게 보지(look at)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세계관을 통해(look through) 세상을 바라본다.

저자의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흩어져 있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난다. 그 실체가 드러날 무렵 저자는 “당신의 세계관대로 일관성 있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일관된 세계관인가?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과 유물론자는 각각 우주에 대한 다른 신념을 품고 있다. 둘 다 옳을 수는 없다. 잘못된 편이 실제 우주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라고 했다. 같은 맥락으로 낸시 피어시는 가장 좋

은 세계관의 특징은 일관성과 통일성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독교세계관만이 가장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현실에 부합하는 세계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독교세계관만이 유일하게 옳은 세계관이며 기독교세계관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이 가진 세계관은 잘못되었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가진 세계관은 이러한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 세계관대로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살 수 있나요?”라고 물으며 그에 대해 스스로 답함으로써 한계에 봉착하도록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이끌어 간다.

일관되지 못한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물질주의와 상대주의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물질주의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본질상 물질적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물질주의만으로는 우리의 정신적 삶과 세계에 대한 의식적 경험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정신, 생각, 느낌 등은 물질과 거리가 먼 것들이기에 이것들이 물질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하기에는 모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일관성 있는 물질주의자라면, 자신의 모든 일에 아무 생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맞다(p. 123). 따라서 물질주의는 일관되고 통일된 세계관이 아닌 셈이다. 상대주의를 예로 들어 보자. 상대주의는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객관적 진리는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렇다면 이 주장도 상대적일까? 만약 상대적이라면 그 자체로 모순이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상대주의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p. 165).

쉐퍼는 세계관이 일관성 있지 않으면 도약을 시도한다고 했다. 만약 물질주의가 사실이라면 정신도 물질에 기인한 것일 텐데, 그렇다면 그 자체가 도약인 셈이다. 일관되지 못하기에 무리한 도약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야 물질주의가 통일된 체계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

독교세계관은 도약하지 않는다. 물질주의는 인간의 몸이 물질에서 기인했다고 어느 정도 합리적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정신에 대해서는 그 기원을 설명하기 모호해 도약을 시도하나 기독교세계관은 인간의 몸과 정신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이라는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기에 도약하지 않고도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5)라고 말한다. ‘대답하다’에 해당하는 헬리어는 ‘아폴로기아’로, ‘변증하다’, ‘변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밭을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은 기독교세계관만으로 충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에 답하고, 그에 대한 반대 답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러한 이웃들의 세계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이해와 동의는 다르다. 다른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판, 정죄하는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동의하지 못해도 이해함으로써 상호소통이 가능하다. 답은 다르지만, 질문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서로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베드로는 대답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믿는 바를 자신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지 않게 말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책은 이런 면에서 참 귀하다.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

는 크리스천들에게 이웃집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 이해 위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때문이다.

『기독교세계관과 현대 사상』의 쉬운 버전

80년대에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시작될 때 지대한 공헌을 한 책이 있다면 바로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다. 이 책의 원제목은 쉽게 번역하면 ‘이웃집 세계관’이다. 사이어는 이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려면 타인의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세계관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토록 많은 세계관에 왜 그것이 참이라고 굳이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누구에게나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스스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이 어디서 기원했으며 사상의 뿌리가 무엇이며 실체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기독교인일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되어있는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가 기독교세계관으로만 충만한 세상이 아니며 우리 주변에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이어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세계관을 정리 및 정립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웃집의 세계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관』이 가진 의도도 이와 비슷하다. 다만 『기독교세계관과 현대 사상』에 비하면 내용이 비교적 쉽고 접근 방법이 친절하다. 본 책을 읽고 심화 과정으로 사이어의 책을 읽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렇게 하길 추천한다.

약간의 아쉬움

대부분의 기독교세계관 관련 책은 북미주와 서구 배경에서 쓰였다. 저자 역시 책에서 서구 문화에서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세계관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

다고 말한다. 한국 기독교는 북미주와 서구 배경에서 쓰인 책들에 진 빛이 많고, 앞으로도 배울 점은 매우 많다. 다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면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바라기는 누군가가 한국 사람들의 타당성 구조인 유교, 불교, 사머니즘적 세계관도 이러한 책의 내용에 함께 곁들여 기독교세계관을 논한다면 한국 독자들도 좀 더 편안하게 이웃집의 세계관과 기독교세계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을까 싶다.



글 | 안성희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전공은 뒷전에 두고 선교단체의 열성분자로 살았다. 하지만 늘 끊임없이 “전공과 기독교는 무슨 관계지?”, “일반 대학생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 란 고민을 하였다. 그러다가 책과 강의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만났다. 이후 예수전도단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고 지금은 남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틈나는 대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교사와 청소년들에게 강의도 하고 있다. 충남대에서 경영학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 div)를 공부했다.